



〈자료 2〉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인사말씀 / 제11회 독서문화상 수상자 명단

인 사 말 씀

한 상 완
한국도서관협회장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만나 뵙게 된 전국의 도서관인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와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님,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해 나가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고 평화와 역동의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강현석 고양시장님, 그리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직위원장 신기남 의원님과 조직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해 온 우리 도서관계 단체와 학회 임원, 그리고 회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올해로 4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도서관대회는 우리 도서관계 최대의 만남과 교류, 축제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마당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회는 연구발표나 각종 전시회, 참가인원 등 모든 면에서 계속 괄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모두 우리 협회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지원과 지지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으로 대회 전시회에 참여해 주신 업계 관계자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행정부처와 시민 등 많은 분들이 도서관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우리나라 미래를 담은 도서관'입니다. 감히 21세기 이후 우리나라 미래는 도서관에 담겨 있고 또 그 발전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지식과 정보는 물론 인간의 문화적 소통은 모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자원이자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이 같은 시대적 사명과 가능성을 깊이 인식한 터 위에서 전문가의 자질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그 막대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여가 활용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닥친 주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정책이 도서관 활성화인 것은 선진 국가의 예를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그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인사말씀

러한데도 불구하고 작금 도서관의 근무환경은 열악해 지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의 우리 도서관계 스스로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도서관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과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도서관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가 지난 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이제 내년 8월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지난 7월까지 우리 협회가 크게 발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신기남 의원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한 가운데 그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오슬로에서 열린 대회에 가서 우리의 준비 상황을 세계에 알려 큰 지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협의회와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대회를 계기로 우리 도서관계가 한 단계 상승하도록 하며, 동시에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도서관 활동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사실 도서관 분야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선도적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서관계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전 세계 도서관들과 연대해서 새로운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 서울에 모이는 전 세계의 우리 동료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우리 도서관인들이 그들과 함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 또한 우리 도서관계가 함께 단결해서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 협회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내년 서울에서의 WLI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신명을 다 바칠 각오인 바,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논문발표와 워크숍, 세미나 등으로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사회자,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도 좋은 주제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도서관대회는 현장과 학계가 만나 실질적인 연구와 실천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훌륭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참가해 주신 관련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도서관계와 업계가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도 이번 대회에 참여할 것이 두고두고 좋은 추억과 앞으로의 도서관인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인사말씀

끝으로 오늘 독서진흥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제11회 독서문화상을 수상하신 도서관,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협회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들에게 공로패를 드렸는데, 어찌 그 큰 공적을 작은 공로패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 모든 도서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그 패에 담아 드리며, 거듭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협회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준비를 위해 크게 헌신하신 우리의 존경하는 신기남 전임회장께 제1호 '명예사서증'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도서관인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우며 보람 가득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가 함께 뭉쳐 우리 협회를 발전시키는 횃불들이 되시기를 다짐하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정 동 채
문화관광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더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제가 물리나던 해에 출범하여 광복 6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전냈으니,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과 헌신을 바쳤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어려웠던 날들을 이겨서 이렇게 튼실한 단체를 가꿔온 도서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또 오늘 국민독서문화 진흥에 헌신한 공로로 제11회 독서문화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세상은 현기증이 날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정보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지적 능력과 창조력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개개인 능력 개발의 요체인 국민독서진흥의 문제에 주목하게 합니다.

독서를 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발길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눈으로, 정신의 발걸음으로 대신하기 위하여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 하나에 몇천 몇만 개의 세계가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도서관 행정의 혁신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도서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실태와 비전을 몸으로 알고 있는 현장의 인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개혁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60주년을 맞아 선포한 “지력강국(知力強國) 창출을 위한 비전” 이러한 바람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땅의 힘(地力)이 국력이었고, 근대 사회에서는 산업과 공장의 힘이 국력이었다면, 21세기, 문화의 세기는 창조적 개인들이 발휘하는 지식의 힘(知力)이 국력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주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담은 도서관’인 것도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격려말씀

기대감을 한층 크게 합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우리 정부는 2002년에 발표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도서관계의 발전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늘 제도와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 본격적으로 역량을 펼쳐서 창의 한국의 미래를 앞당기도록 합시다.

끝으로, 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국도서관협회 한상완 회장과 직원 여러분에게, 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자, 우수한 제품을 선보인 전시회 참가업체 관계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출하신 여러 단체와 발표자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력강국 창출에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축 하 말 씀

손 학 규
경기도지사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인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앞서 우리나라 도서관 관련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신기남 조직위원장님,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님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을 경기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으로 체력을 기르고 독서로 정신력을 기른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독서와 도서관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난 2002년 말 58개에 불과하던 도내 도서관 현황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 2006년 말이면 120개에 이르는 도서관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행사를 하시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말 씀

강 현 석
고양시장

존경하는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협회 회원 여러분!
책을 사랑하시는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와 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높푸른 하늘이 눈부신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나라 미래를 담은 도서관'이라는 대주제로,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떠오르는 우리 고양시에서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90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인구 1백만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는 전시 컨벤션 산업의 허브 한국국제전시장(KINTEX)과 동양 최대의 3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 차이나타운 및 한류우드단지 조성 등 환경생태와 문화관광,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 같은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세상이라 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기쁨은 인터넷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이 향기로 가득한 도서관에 차분하게 앉아 책을 읽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여름 네 번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책 축제'를 열었었는데, 선생님들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자 분들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교도서관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교류 및 바람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도서, 기기, 전자시스템 등의 전시를 통한 최신 정보 제공, 도서관 발전에 관한 주제발표 등 풍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환영말씀

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전국의 도서관인들이 이렇게 활기차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 이번 대회 주제인 '우리나라 미래를 담은 도서관'이 바로 눈앞에 활짝 열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43회 전국도서관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정성을 기울이신 한국도서관협회 한상완 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손학규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축 하 말 씀

신 기 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서관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해까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지만 올해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가 2006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한국 도서관계의 역사적이고 중대한 행사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이 될 전 세계 도서관 분야 지도급 인사 및 각국의 도서관인들 약 5,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1999년 WLIC 방콕대회에서 서울이 2006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조직위원회는 2006년 대회를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 2005년 2월에는 2006서울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한상완 집행위원장을 위시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년 대회 준비를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2005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도 조직위원들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전시회장에 마련된 서울대회 홍보부스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서울대회를 소개하고 참가를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오슬로대회 폐막식에서는 약 15분 정도 서울대회 홍보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여러 참가자들에게 서울대회 초청 인사를 하였고, 한국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축하말씀

의 역사, 문화, 전통,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의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상영하였으며 광고춤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서울대회 홍보시간의 내용이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고, 아울러 한국의 전통예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6년 서울대회는 단순히 조직위원회나 임원들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6년 서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서관문화의 국내 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과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한국의 도서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서울대회 개최의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들이 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서로 합심하여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치러 냄으로써 세계인들의 감탄과 찬사를 받았으며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확립한 저력의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들의 의식의 성숙과 국가의 발전이 확립되었듯이, 저는 2006년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국의 도서관계를 더욱 도약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6년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주제를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역동적 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힘을 합칩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와 활동의 기회를 준비하여 한국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각국의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대회를 통하여 국내 도서관인들께서 세계 각국의 도서관 전문가들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전문적 경험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질도 배가 시킬 수 있는 학술적 배움의 장이자 축제의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제11회 독서문화상 수상자

훈격	수상자(단체)명	소속/직급(위)	추천기관
대통령 표창 (2)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단체	국방부
	금정도서관	단체	부산광역시
국무총리 표창 (2)	김천시립도서관	단체	경상북도
	김민영	전주시립도서관 / 사서주사	전라북도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20)	최명옥	잠원동 책사랑방 / 회장	서울특별시
	이동희	부산 동구도서관 / 사서주사	부산광역시
	백호승	광주 일곡도서관 / 사서주사	광주광역시
	임종일	중앙문화정보센터 / 사서주사	경기도
	권영식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 사서주사보	충청북도
	곽두용	당진 동부새마을금고 / 이사장	충청남도
	서진순	전북 완주군도서관 / 사서서기	전라북도
	이현아	서울 매원초등학교 / 교사	서울시 교육청
	정미선	서울 한산중학교 / 교사	서울시 교육청
	성숙자	한국과학영재학교 / 교사	부산시 교육청
	곽돌림	울산 동부도서관 / 사서주사	울산시 교육청
	육경애	충북 진천도서관 / 사서주사	충북 교육청
	김호주	전라북도 교육청 / 행정주사보	전북 교육청
	정선주	정선주상담교육센터 / 소장	전남 교육청
	김정숙	포항 유강초등학교 / 교사	경북 교육청
	김미연	경남 산청도서관 / 사서주사	경남 교육청
	김종필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 사서주사	국공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김진희	서울 관악구 봉천5동분회 / 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우당도서관	단체	제주도
	한남대학교 학술정보관	단체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 제11회 독서문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